

《대화의 역사》 · 《비폭력 대화》

우리가 몰랐던 대화의 역사, 그리고 독백

관계는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해 준 적이 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느낌을 알지 않겠는가라고 추측하지만 예상 외로 모르고 있으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 마이클 오크숏은 “대화는 인간 존재와 다른 동물들을, 문명인과 야만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오크숏이 말하는 대화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메신저로 수다를 떨거나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행위는 대화가 아니라는 얘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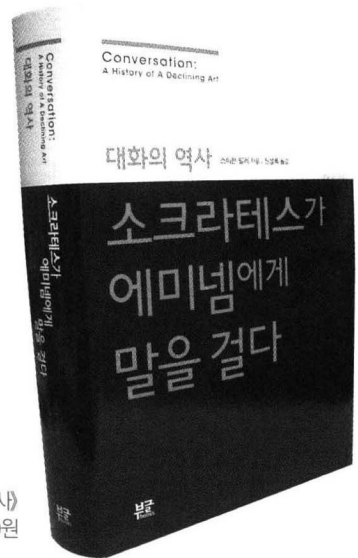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많은 소설가와 사상가들이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주로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신에 들어온 개념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소설가 레베카 웨스트는 “대화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착각이다. 서로 엇갈리는 독백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나 교차점을 찾지 못하는 불행한 대화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화의 역사》는 일상의 대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인 스티븐 밀러는 훌륭한 대화란 유머 감각이 풍부해야 하고,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훌륭한 경청자가 되라고 한다. 대화의 필요성은 결핍으로부터 온다. 대화가 좋은 점은 대화에서 얻어지는 정서적 보상이다. 지친 영혼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슬픈 일을 잠시 잊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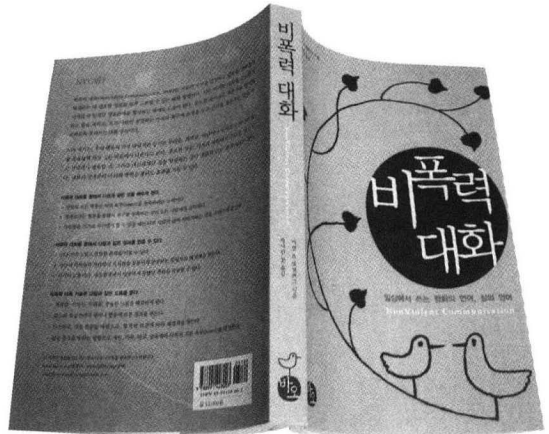
《대화의 역사》에서 보면 많은 전문가들은 인간이 약 5만 년 전에 언어를 갖게 됐다고 한다. 인류학자 리처드 클라인에 따르면 “이데올로기 혹은 종교적 의미를 명백히 띠는 정교한 무덤들은 겨우 5만 년 전 이후에 나타났으며, 그것들은 우리가 인간 문명의 여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 것들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말한다. 즉 언어의 정교한 무덤의 건축과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아마 죽은 사람을 받드는 방법을 놓고 대화가 오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비폭력 대화》에서는 대화 잘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





《대화의 역사》
스티븐 밀러 지음 | 진성록 옮김 | 부글 | 413쪽 | 값 18,000원



《비폭력대화》
마셜 B. 로젠버그 지음 | 캐서린 한 옮김 | 바오 | 279쪽 | 값 12,000원

의 대표적인 유형이 도덕주의적 비판이다. “너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문제야.”, “그 애는 게을러.”, “그들은 편견에 가득 찼어.”, “그건 당치 않아!” 등. 비난, 모욕, 비판, 비교, 분석, 낙인을 찍어 버리는 말 등이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방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생각으로 가득 찬 비판의 세계에 우리를 가둔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의 또 다른 형태는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쓰는 “꼭 해야만 해”라는 표현이 우리의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얼마나 모호하게 하지는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가를 깨우치기 보다는 꼬리표를 붙이고, 비교하고, 요구하고, 비판하는 말을 배우면서 성장해 왔다. 나 자신의 내면이 느끼는 진실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비폭력 대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대화 방법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말하

면 네 가지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첫째, 자신을 탓하기. 둘째, 다른 사람을 탓하기. 셋째, 우리 자신의 느낌과 욕구 인식하기. 넷째, 부정적인 말 속에 숨은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기.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판단, 분석, 평가 등은 우리 자신의 욕구나 가치관의 왜곡된 표현이다. 사람들은 비판을 받으면 자기방어나 반격에 힘을 쏟는다. 우리 느낌을 우리 자신의 욕구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해 표현할수록 상대방은 더 쉽게 공감하며 반응한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화가 처한 열악한 환경은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소크라테스 카페와 컨버세이션 카페를 중심으로 대화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기술의 발달은 점차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수 없도록 방해를 놓는다. 넉넉한 대화를 나누는 방법까지 훈련받아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정훈**

정윤희 기자